

[보도자료] 3월 3일 오후 3시 이후 보도 바랍니다.

"교계 최고 지도자, 보수진보 원로, 광복 100년 앞두고 국민통합
나섰다"

"반성과 성찰로 미래 100년 위한 새 대한민국 만들 것"

'포용과 공존'의 미래로, 「광복100년 국민동행」 제안 발표회 오찬 기자
간담회에 초청합니다.

「광복100년 국민동행」 준비위원회입니다.
오는 3월 3일(화)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광복100년 국민동행」 제안 발표회를 엽니다. 취재를 정중히 요청드리며,
행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20년 앞으로 다가온 광복 100년을 맞는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으로 우뚝 섰지만, 그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대립과 반목, 갈등이라는 깊은 균열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저출산과 고령화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기후·생태 위기와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가져온 문명사적 전환, 그리고
새로운 패권 경쟁과 요동치는 국제질서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 기성세대와 각계 원로 인사들이 역사 앞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공희 대주교(천주교 전 광주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강우일
주교(천주교 전 제주교구장),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 정념 스님(오대산 월정사 주지),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이해동 목사(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 원로목사), 안재웅
목사(예수교장로회, 전 YMCA이사장), 박경조 주교(대한성공회 전 서울교구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김신일(전 부총리),
이삼열(숭실대 명예교수, 대화문화아카데미 전 이사장), 오세정(전 서울대 총장), 황석영
작가 등이 앞장서 뜻을 모았습니다.

사회 각 분야와 전국 각지의 제안자 130여명은 이념과 진영을 넘어 포용과 공존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을 함께 준비하는 열린 국민운동의 장으로서 「광복100년 국민동행」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복100년 국민동행」은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중도, 성찰적인 진보가 손을 맞잡고 인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상대를 밀어내는 대신, 서로 다른 삶과 생각을 인정하는 '포용'과 함께 사는 '공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지키는 '절제'의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와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광복100년 국민동행」은 대한민국의 광복 100년을 맞이하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실천적 대안을 제안해 나가고자 합니다.

- **사회 통합과 약속 복원:** 극단적 갈등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고, 포용과 대화를 통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을 다시 세우는 일
- **세대 간 연대와 희망:** 저출산·고령화 및 삶의 격차 문제를 풀고, 청년 세대에게 미래의 희망을 건네는 연대의 방안
- **문명사적 전환 대응:** 기후 위기에 맞선 생태적 공존 기준 마련 및 AI 등 디지털 기술이 불러온 문명사적 전환에 대응해 인류 공영의 방안
-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평화와 공존을 남북 거래의 가치와 문화로 키워 세계 문명의 모범이 되는 방안

「광복100년 국민동행」은 8월 15일 공식 출범때까지 토론과 포럼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단단한 의지의 첫걸음에, 언론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광복100년 국민동행」 제안 발표회
- 일시: 2026년 3월 3일(화) 오전 11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기자 간담회: 발표회 직후 (오찬을 하며 약 30분 예정)

발표회 후에는 각계 제안자들과 기자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취재 및 인터뷰를 원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3월 2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참석 의사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인의 관심과 취재가 이 뜻깊은 논의를 더 많은 국민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 바랍니다.

별첨 1. '광복100년 국민동행' 제안서

별첨 2. 각계 및 지역 제안자 명단

2026년 2월 26일

「광복100년 국민동행」 준비위원회

미디어 담당 연락처:

대표 이메일: info@korea2045.org

김영철 준비위원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email: yckim2490@gmail.com, HP: 010-7174-2400

이명호 준비위원 (사단법인 미래학회 고문)

email: lee.myungho@gmail.com, HP: 010-8716-8515